

우시장의 휴식공간이 갖는 장소적 가치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을 중심으로 -

이소율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

I. 서론

본 연구는 2017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8년 활성화 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우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기존의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계획 및 설계가 진행되었던 도시재생사업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상지의 사회적 환경을 연구함으로써 대상지가 갖고 있는 잠재력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산동 우시장은 과거 도축장 시설이 있었으나, 교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현재 도·소매 판매시설(상업 시설)만 남아 있는 상황으로 시장 규모 축소와 열악한 환경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한때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시장 상권 활성화와 우시장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고자 금천구청에서는 2018 뉴 거버넌스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우시장 일대의 입구에 위치한 소규모 공터에 우시장의 판매품을 상징하는 소 형상의 홍보 조형물 설치 프로세스를 시행하였고, 2018년 6월 홍보 조형물이 설치되었으며, 이를 축하하는 제막식이 개최되었다. 본 연구는 조형물이 설치되기 이전에 우시장 일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당시 공터로 남겨져 있던 공간의 장소적 특성에 주목하였고, 도심에 위치한 우시장의 특수성과 함께 이곳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우시장 상인들의 작업 환경과 하루 일과 그리고 사용 목적에 따른 상인들의 공간 활용에 관하여 조사 분석하여 그들이 휴식 공간으로서 공터를 인식하고 활용해 오고 있는 장소성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홍보 조형물 설치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당시 상인들이 휴식 공간으로서 활용해왔던 공터에 오랜 세월 함께해온 목련나무가 물리적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제거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곳에 있던 상인들이 그들의 추억과 휴식을 상징하는 장소성이 내재된 수목이 갖고 있는 가치를 주장하여 결국 목련 나무를 지키게 되어 소 형상의 홍보 조형물 설치 이후, 공터가 갖고 있었던 휴식과 추억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는 장소성을 유지하게 된 과정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우시장의 휴식 공간이 갖고 있는 장소적 가치를 고찰함으로써 특정 장소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일을 하는 공간 이외의 다른 공간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장소성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이해하고, 향후 도시 및 지역 발전에 있어 이와 같은 요소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II. 이론적 고찰

1. 대상지 이해

독산동 우시장은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우시장 일대를 지칭하는 상업 지역으로서 과거 1970년대 마장동 우시장과 함께 서울시의 주요 육류 유통의 허브(HUB)역할을 하였다. 1974년 협진식품 도축장이 독산동에 입지함으로써 인근에 도·소매 유통사업체와 같은 상업 시설들이 증가하였고, 그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오늘날 '독산동 우시장'이 탄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등장과 같은 유통구조의 변화, 도시 계획에 의한 도심의 주거 시설의 증가, 주요 경제 산업의 변화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도축장은 교외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축소된 규모의 우시장은 매출 감소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고, 이는 금천구 지역 경제와 직결되어 지역 경제력 저하를 야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노후하고 열악한 작업 환경과 도·소매 시장에 대한 인근 주민들과 일시적으로 독산동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갖는 인식의 부정적인 변화는 우시장이 대외적으로 갖는 장소적 가치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2016년 6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후보지로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일대가 선정되었고, 그해 (예비)우시장 '상인협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지역과 우시장 간의 상호 변화를 꾀하였고, 그 결과 2017년 서울시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근린재생 중심 시가지형으로 선정되어 2018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우시장 일대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왔다.

2. 현황 분석 및 연구방법

독산동 우시장 일대는 70년대 협진식품 도축장 입지를 중심으로 재래시장들, 다양한 규모의 소·도매 유통업체 그리고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정육점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현재 규모 축소와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본 연구의 대상지는 독산동 우시장 일대 초입에 위치한 곳이자 현재 지하 1층부터 1층까지 도매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협진정육부산물도매시장(이하 협진도매시장)' 지하 1층 입구 바로 앞에 자리한 공터이다. 이 공터는 표면적으로 용도가 불분명하고, 오래된 낡은 공간

이지만, 이곳 우시장에서 축산 사업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에게는 실외 공간이자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어 왔다. 상인들의 상업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우시장이 갖는 제한적인 장소적 성격을 넘어 그곳에 위치한 휴식 공간을 재조명함으로써 장소를 영위하는 상인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휴식과 추억이 내재된 장소적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이와 관계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의 맥락에서 그 중요성을 고찰해 볼 수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2018년 3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 매주 1회 또는 2회를 걸쳐 전반적인 독산동 대상지 조사를 실시하고, 거주민, 상업 시설의 가게 주인 및 직원, 지역 부동산 공인 중개사에게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2018년 4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소모형의 홍보 조형물이 설치되기 전까지 매주 상인들의 축산 작업을 끝낸 후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방문하여 공터와 도매시장 내부에서 인터뷰 요청에 사전 동의한 상인에 한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실명은 거론하지 않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시간 전후로 우시장 일대와 공터를 직접 돌아다니며 물리적 환경을 관찰 및 분석하였다.

3. 우시장 휴식공간이 갖는 장소성

본 연구에 앞서 공간과 장소에 관하여 이 푸 투안(Yi-Fu Tuan)은 공간이 장소로 변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경험이 연관됨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장소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목적, 경험, 의도 등으로 인해 장소적 특성을 띠게 되고, 다른 공간과 구분되는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우시장 휴식공간은 그곳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가치로서 장소성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시장이라는 물리적 환경에서 매일 생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은 평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판매용 육류를 가공하고, 물류유통을 통해 타지로 운송하거나 도매시장에서 직접 판매한다. 실제로 적은 외부 공기와 열악한 내부 환경 속에서 강도 높은 노동 때문에 바쁜 시간을 쪼개어 휴식 시간을 보내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잠깐이나마 시간을 내거나 하루 작업량을 끝낸 상인들 몇 명은 내부에 있는 각자 자리에서 쉬거나, 다른 몇 명의 상인들은 바깥에 있는 공터에서 휴식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2018년 4월 2일 기준으로 공터에는 협진도매시장 입구 바로 앞 세로 방향으로 벤치 2개가 놓여 있었고, 그 뒤로 협소한 규모의 화단과 파라솔이 있는 테이블과 그 옆에 간이 의자 2개가 있었으며, 개화기에 맞춰 꽃을 피운 비교적 수고가 높은 매화나무가 있는 공간이라고 묘사할 수 있다. 공터가 상인들에게는 특별한 공간으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곳 협진 도매 시장에서 유통업에 종사하는 A씨는 “여기 이름이 목련카페예요”라며, 공간이 이름이라는 장소적 성격을 부여받음을 통해 특정 사용 목적과 이용자들의 경험이 축적된 장소성을 담고 있는 특수한 성격의 장소로 변모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기적인 상인들의 인터뷰 과정에서 공터의 이용자 대부분이 이

곳에서 휴식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했으며, 작업량과 당일 컨디션 및 일정에 따라 이용 횟수는 상이하다고 한다. “휴게실이라고 건물 내부에 휴게 공간은 없어요”(협진도매시장 상인 B씨),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천 명 숨 쉬는 거랑 똑같은 거래요”(협진도매시장 상인 C씨), “여름철, 특히 장마에는 비를 피하고, 매화나무 그늘 아래에서 장기를 두기도 해요”(협진도매시장 상인 D씨). 위의 인터뷰 내용에서 보듯이 휴식 공간은 휴식뿐만 아니라, 생업과 관련하여 경험했던 추억과 기억 그리고 자연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장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우시장 상인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쇠퇴하고 있는 우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소모양의 홍보 조형물의 설치를 위한 공간적 확보를 위해 기존의 공터에 시설물들과 화단 그리고 목련나무가 제거될 계획이었다. 홍보 조형물 제작 사업에 상인들의 사전 동의와 긍정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오랜 세월 우시장에서 생업에 종사했던 상인들에게 추억과 경험이 축적되어 온 장소성을 상징하는 목련 나무의 부재는 곧 장소성의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그래서 실제 공사 과정에서 목련나무를 존치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목련나무는 그대로 둔 채 바로 앞에 위치할 예정인 홍보 조형물의 크기 및 규모를 고려하여 큰 가지 한 부분만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식을 위해 기존의 낡은 벤치와 간이 의자를 그대로 유지하여 2018년 5월 25일 소모양의 홍보 조형물이 설치된 이후에도 상인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장소성을 이어오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III.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서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적 환경을 연구함으로써 내재된 대상지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정 장소가 갖는 장소성이 계획가의 입장에서 놓칠 수 있는 지역 사람 간의 상호관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효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시장이라는 특수한 장소적 성격을 갖고 있는 상업 시설에서 휴식 공간의 발견을 통해 상인과 같은 이용자의 경험과 추억이 만드는 장소성이 개개인에게 소중한 가치를 가져다줄 수 있음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금천구청 도시재생과(2018) 2018 뉴거버넌스형 도시재생 프로젝트.
2. 금천구청 도시재생과(2018) 2018년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사업 공유회.
3. 박한솔, 신민경, 이소율, 권소영, 김기영, 윤다니엘(2018) 우리동네 독산동. 금천구 미래발전추진단.
4. 이경진, 김경진(2019) 비영리단체(NPO)의 커뮤니티 디자인 활동에 나타난 공간 실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8(4).